

*** 회사,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을 하면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한 바퀴>

종합복지관에서 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기관에서 나왔다고 밝히지 않고 주민을 만나 동네에 대한 생각을 들었던 것입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주민욕구파악을 위해 수행했던 일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2인 1조로 구성하여 구역을 나누고 조원과 함께 만날 대상의 성별, 연령과 질문을 전략적으로 계획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해 8월 초 무더운 날씨에 길가에서 낫선 이와 대화하는 것이 꺼려질 것 같아 근처 슈퍼마켓에서 주민에게 드릴 시원한 음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슈퍼마켓 아주머니, 동네로 매일 출근하시는 미화원아저씨, 동네에 많이 거주하시는 어르신, 젊은 아기엄마, 방학 중인 중고생들을 만나 지역의 장단점에 대한 견해를 듣고 대화내용을 잘 기억해 두어 헤어진 다음 바로 수첩에 메모하여 정리했습니다. 다시 기관에 모여 슈퍼바이저와 피드백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족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 본인이 소속된 집단이나 조직의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Robland(광활한 땅)>

2009년 겨울 세계인이 되겠다고 경비를 모아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최소 경비만 준비해 갔기 때문에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대륙횡단사원 모집이라는 이색적인 채용공고를 발견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라반(연결형 캠핑카)을 이용해 동쪽 골드코스트부터 서쪽 퍼스까지 약 6100km 여정이었고 각 지역에서 1~2주 간 머물며 쇼핑몰에서 간이 판매대를 설치해 호주인에게 한국의료기를 판매하였습니다. 국산품수출의 일선에 있었고 무엇보다 회사와 저의 비전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장님이 태국, 북한, 칠레 등지에 수익금의 10%를 전달하여 복지 기관을 짓거나 식량보급을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근 후에도 늘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사장님이 가장 어린 저에게도 늘 귀 기울여 주고 지지해주셔서 내일 내일 구분 짓지 않고 자회사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일삼고 근무 시 고객과 즐겁게 소통하는 상사를 만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상호신뢰가 전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귀 공단에서 서로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 본인이 알고 있었던 법률적 지식을 활용/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됨이 최고다>

고등학교졸업식직후 친구들과 대학로에서 어떤 여성분에게 호객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모 홍보팀에서 나왔는데 백화점입점행사로 회원가입을 하면 매달 신제품이 출시될 때 집으로 무료로 보내 주고 가입비 3만원을 내면 바로 귀걸이 두 세트를 증정한다고 해서 어린 마음에 별 생각 없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 연락이 왔는데 처음에 들은 이야기와 달리 매달 3만원 씩 입금을 해야 한다고 했고 처음에 준 액세서리는 무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이야기와 달라 입금거부를 했더니 수차례 독촉연락이 왔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여 두려웠으나 냉철하게 이에 소비자기본법을 알아보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처음에 받았던 공채의 신으로 돌아온 대세, 인크루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제품과 독촉장을 동봉해 부친 후에 잘 해결되어 같이 피해를 입은 친구들에게도 알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근로현장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대상자를 위한 법률적 지식을 전공을 통해 배웠으며 더욱더 범위를 넓혀 그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 본인이 소속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어 낸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자원봉사?!>

대학2학년 때 봉사동아리회장으로서 신입생모집을 하던 중 “봉사 점수 많이 주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순수봉사동아리였던지라 보육원에서 매주 야학을 하지만 VMS상으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봉사시간을 채우면 학점을 받는 제도가 있어 그런 문의가 계속 들어 왔습니다. 타동아리에서는 봉사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신입생모집을 위해 우리도 바뀌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임원단과 의논 후 회의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학점을 얻기 위한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4대 원칙에 적합하지 못한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 문제는 학점을 제공하는 교내제도 하에 있었고 동아리유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대선배들이 창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내세웠으나 이에 자원봉사라는 것이 처음과 달리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봉사자 스스로 보람을 느껴 자발성이 우러나올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선배들도 수긍했고 보육원장님과 상의하여 해결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은 필요충분조건이므로 항상 그 안에 서있겠습니다.

***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나 일의 우선순위나 수행방식을 적절하게 바꾸어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된다. 도전!>

호주에서 대륙횡단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쇼핑센터의 규정상 우리 것이 아닌 제공해 주는 판매대를 사용해야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는 광고배너제작이 필요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친분 있는 분에게 출력할 이미지제작을 부탁했는데 불행이도 파일크기가 너무 크고 들어 가야할 문구와 이미지가 요청한 부분과 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탁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제게 이미지편집을 해 줄 수 있냐고 하셨고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홍보포스터를 제작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옆에서 사장님과 함께 들어 가야할 부분을 의논 하고 바로 조정할 수 있어서 금방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포토샵을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지만 아버지께서 늘 “하면 된다.”라고 하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능숙하지는 못해도 차분히 적합한 이미지를 제작해 광고배너제작회사로 파일을 전송했고 제시간에 출력물을 받았습니다. 후에 회사제품설명서의 오타와 잘못된 표현수정도 하여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매사에 새로이 도전하고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유연성 있게 일에 임하겠습니다.